

교환학생 보고서

이름	한글	박준범	영문	Park Jun Beom
파견 국가		필리핀	파견 대학	마푸아 공과대학

■ 교환학생에 관심 갖게 된 계기 및 지원 동기

많은 교환학생 분들이 학교 선배님과 지인들로부터 조언을 얻고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신청한 것과는 달리, 저는 개인적으로 평소에 '영어'라는 언어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계기는 제가 살아오면서 배워온 영어라는 학문에서의 괴리감이었습니다. 나름 영어에 대해서 스스로 잘하는편이라고 생각해온 저는 우연히 학과에서의 영어면접에서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교환학생프로그램을 접하게 되었고 교환학생이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 출국 전 준비 사항과 주의할 점(상대교 서류준비, 비자발급 절차, 항공권 구입, 수강신청 및 기숙사 신청 내용 포함)

상대교 서류준비에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교환학생프로그램을 도와주시는 사무실에서 필요서류를 작성하라고 통보할 때가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리핀의 경우 무비자로 입국시 30일동안 체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처음 비자연장을 하실때는 30일 밖에 할 수 없구요. 그 다음 비자연장을 신청하실 때 필히 ACRI-CARD를 만들어야 합니다. 즉 60일의 체류가 넘어가는 경우가 되겠네요. 비자연장하실 때 금액을 납부하시고 여권은 당일 받을 수 있는 것(1시간 정도 후에 여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일 정도후에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잘 확인하고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공권의 경우 저는 요즘 항공권을 비교하는 사이트를 많이 접해보실 수 있습니다. 출국날짜가 정해지면 상대교로 같이 가시는 금오공대분이 계시다면 연락을 서로 취하여 가능한 빠르게 구매하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늦더라도 가격이 확실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수강신청 및 기숙사 신청의 경우, 상대교에 가서서 경험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환학생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정말로 잘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 파견대학 소개(크기, 지리적 위치, 기후, 주변 환경 내용 포함)

사실 금오공대에 비해서 현저히 작고 시설이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다니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날씨는 이번 한국에서의 폭염정도가 거의 계속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기와 우기로 딱 나뉘져 있습니다. 우기 때 비가 오면 허리까지 비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크림은 필수로 챙겨가시는 게 좋습니다. 마푸아대학은 필리핀의 수도인 '마닐라' 인트라무로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걱정되실 부분이 휴대폰로밍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유심칩을 구입 후 편의점에서 1일, 3일등의 기한 내에 정해진 데이터를 구입할 수 있는 카드를 사서 이용했습니다. 주의사항이 있다면, 데이터를 충전하실 때 큰 금액을 사서 충전하시지 마시고, 가장 작은 단위로 충전해서 데이터를 선택,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큰 금액을 충전하시면 만일 선택한 데이터를 다 소진 시 남아있는 잔액에서 빠져나가는데 상당히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꼭! 작은단위로 카드를 구입하시기 바

랍니다. 금액은 50페소 100페소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 수업 및 학사 관련 사항(수강과목 포함)

학교에 있는 CCS Office에 가보셔서 얘기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수강신청이나 학교생활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는 친구들을 많이 사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학기마다 개설되는 과목이 들쭉날쭉이어서 꼭 사무실에 물어보고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리핀은 따갈로그라는 언어를 쓰는데, 수업에 있어서는 교수님께 말씀드리면 영어로 수업을 진행해 주십니다. 중간중간 농담은 따갈로그로 진행이 됩니다. 수업하다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바로바로 옆사람에게 물어보시면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주실 것입니다. 필리핀사람들은 대체로 한국사람들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시도하면 흔쾌히 상대해 주십니다.

■ 숙소 및 거주 관련 사항(기숙사비, 생활비 내용 포함)

숙소를 여러곳에서 한곳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더울 것이라 판단하고 가장 가까운 기숙사를 신청하였습니다 (도보로 5분소요). 금액은 한달에 약 13만원정도입니다. 전기료는 매달 약 2~3만원 정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덥기 때문에 항상 에어컨을 틀어야 될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생활비는 약 한달에 40~50만원 정도로 생활했습니다. 인트라무로스 주변은 굉장히 음식들이 싸기 때문에 아주 간편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 파견대학 국제팀 프로그램/서비스 및 교환학생 활동 소개

마푸아 공대로 교환학생신분으로 온 여러나라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이 있는데, 참여하시면 굉장히 재미있을 것입니다. 참여하셔서 경품도 받고 친구도 많이 사귀실 수 있을 것입니다.

■ 학교 부대시설 및 추천 하고 싶은 동아리



마푸아공대의 학생식당은 위의 사진과 같습니다. 여러 상점들이 있고 각자의 취향에 따라 메뉴를 골라서 중앙에 배치된 테이블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제가 학교를 다녔던 기간에는 에어컨이

없어서 매우 더웠지만 지금 공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사진은 학교 체육관 시설입니다. 태권도와 농구를 하는 학생들이 많이 보이실 겁니다. 관심이 있는 학생은 같이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문화적 차이 및 향후 파견 학생들을 위한 TIP

사실 가장 놀라웠던 사실은 '동성애자'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한 번 놀랐던 것은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과는 너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굉장히 친절하고 유머러스한 친구들이었습니다. 제 편견에 자신이 부끄러워질 만큼이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마닐라는 굉장히 치안이 좋지 않습니다. 밤에는 혼자 길거리를 돌아다니시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음식같은 것들을 쥐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필리핀의 문화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던 부분은 바로 '친절함'입니다. 필리핀사람들의 가장 유명한 특징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그들은 굉장히 친절합니다. 항상 모르는 것을 물어보면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느낀 점, 배운 점

무엇보다도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울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도 스스로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물론 전공학점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공부도 하면서 다양한 친구와 문화를 접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정말 뜻깊었습니다. 사실 금오공과대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비전공과목에 대한 교육이 마푸아공과대학보다는 뒤떨어져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곳 교수님은 일방적인 지식을 전달하기보다 학생들과 많은 소통을 하고 그 학생들과 함께 교실밖으로 나가 함께 참여하고 함께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한편으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